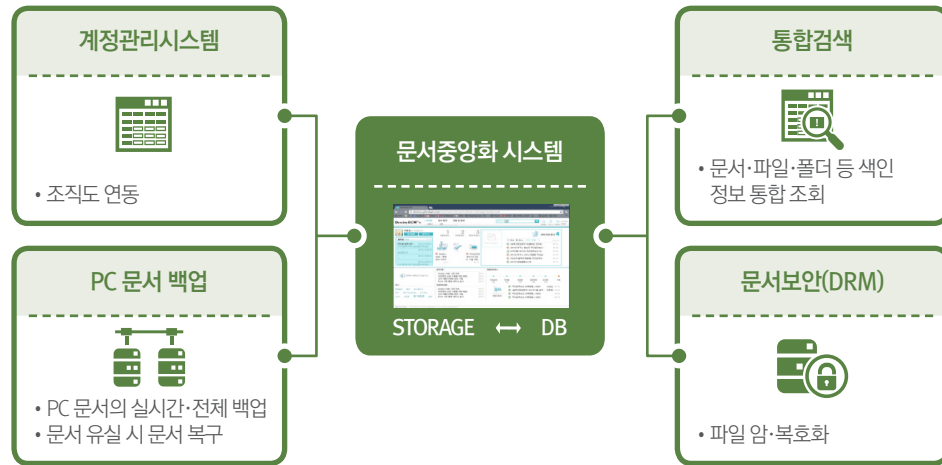


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기업 기밀정보 유출로 인한 이미지 손상 및 유·무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선제적인 정보보호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보안총괄책임자인 CEO의 관리하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는 고객서비스 담당 임원들과 함께 회사 및 이해관계자 전원의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문서관리 체계 구축

문서중앙화 시스템 적용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문서중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본사에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보안위협에서 안전하게 문서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PC에 산재되어 있던 문서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활용도 증가로 인한 업무 생산성 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안점검체계 강화

IT 보안솔루션 강화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문서중앙화 시스템으로 인해 문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빈틈없는 문서보안을 위해 자체적으로 본부 협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정보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서유출방지를 위하여 문서 암호화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을 강화하였으며, Web-DRM 시스템과 문서 출력물 유통 및 추적시스템(Data Loss Prevention system, DLP)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안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의해킹 점검

인터넷 서비스 구간, 웹 시스템 환경의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푸르시오, 대우건설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 점검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최신 침투기법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대우건설의 웹사이트 현황 및 주요 웹사이트의 취약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현황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우건설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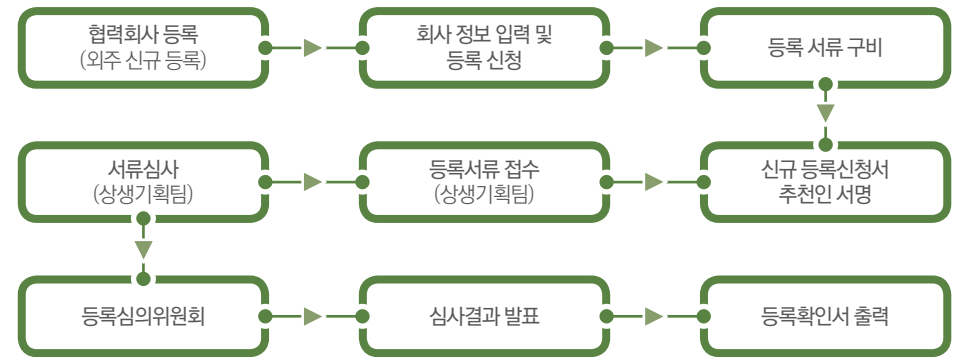
동반성장

협력회사 선정 및 평가

협력회사 선정

협력회사 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우수 협력회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 1회 IT 시스템 기반의 'e-Cos'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며, 상생기획팀과 조달 및 각 사업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최종 신규 협력회사를 선정합니다. 심사는 시공 및 기술 역량, 재무 안정성, 신용 평가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안전환경 및 노동, 윤리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 항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협력회사 우선 배려 정책과 ISO 14001 인증 기업 가점 부여 등 공급망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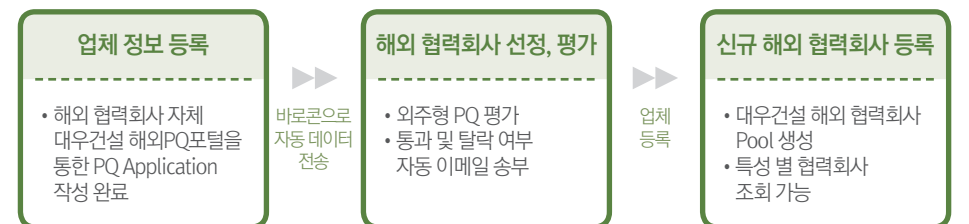
신규 협력회사 등록 프로세스



해외 외주입찰 프로세스

대우건설은 해외 협력회사 선정 시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 공정 통합관리시스템인 바로콘(BAROCON)과 해외 외주입찰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Contractor Registration(PQ Application)'을 통해 전사 해외 협력회사 정보를 통합 관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Global Contractor Registration(PQ Application)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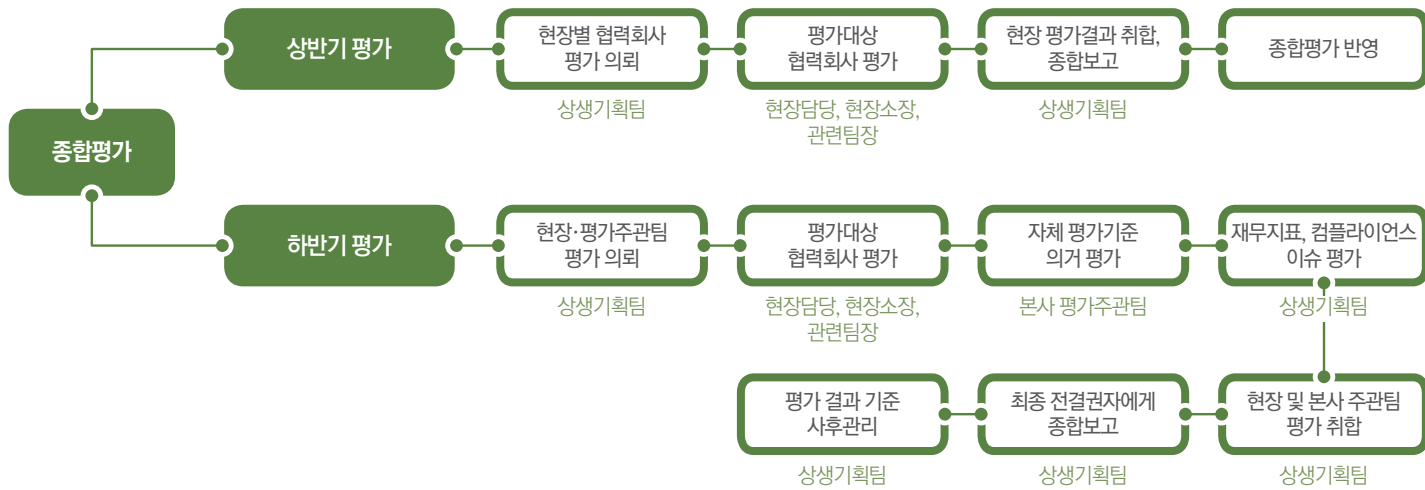


협력회사 평가 및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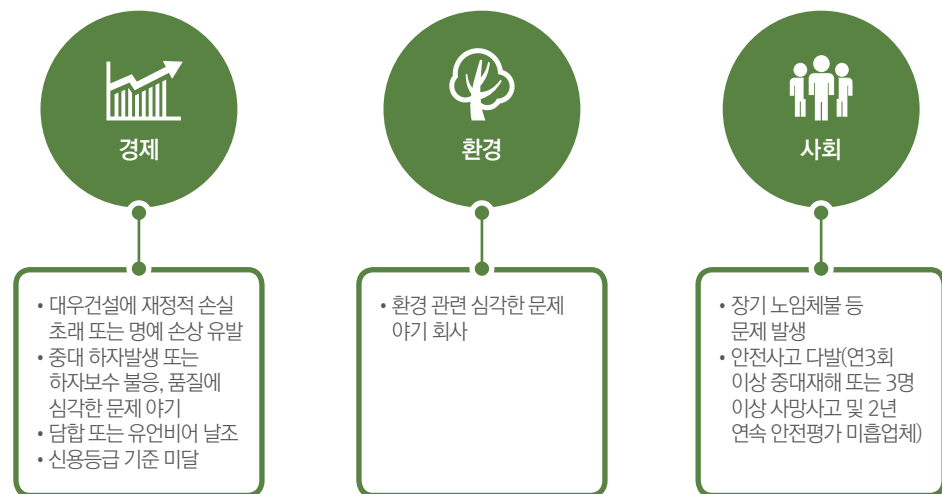
대우건설은 일정 기간 거래실적이 있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연 2회의 현장평가와 본사평가 등 정기 협력회사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시공능력과 현장관리능력을 측정하며, 본사평가를 통해 재무상태 및 안전·환경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을 점검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시공 역량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정예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등록 프로세스



협력회사 자격 취소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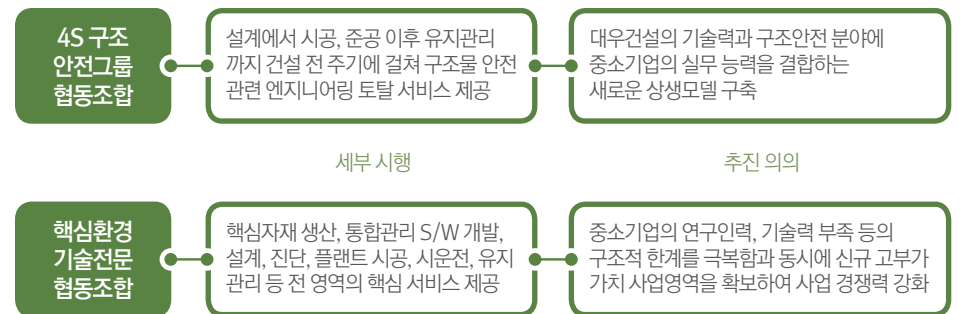
협력회사 지원

2017년 말 기준 280억 원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178억 원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52억 원을 31개 협력회사에 운용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최우수 및 우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 징구 면제 및 경감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인식 수준 향상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명절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협력회사 윤리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 수준향상 프로그램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협력회사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0%까지 징계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협력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브리핑 및 현장소장 간담회를 진행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동조합(기술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산업 생태계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S 구조 안전그룹 협동조합'과 '핵심환경기술전문 협동조합'이라는 장기적 상생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회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건설직무,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 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7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협력회사의 소장 및 신규계약 협력회사 CEO 및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월별 환경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한 협력회사 관리감독자 대상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개 우수 및 주요 협력회사 임직원을 초청하여 동반성장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3개 협력회사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어 협력회사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 소통채널인 'e-Cos'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